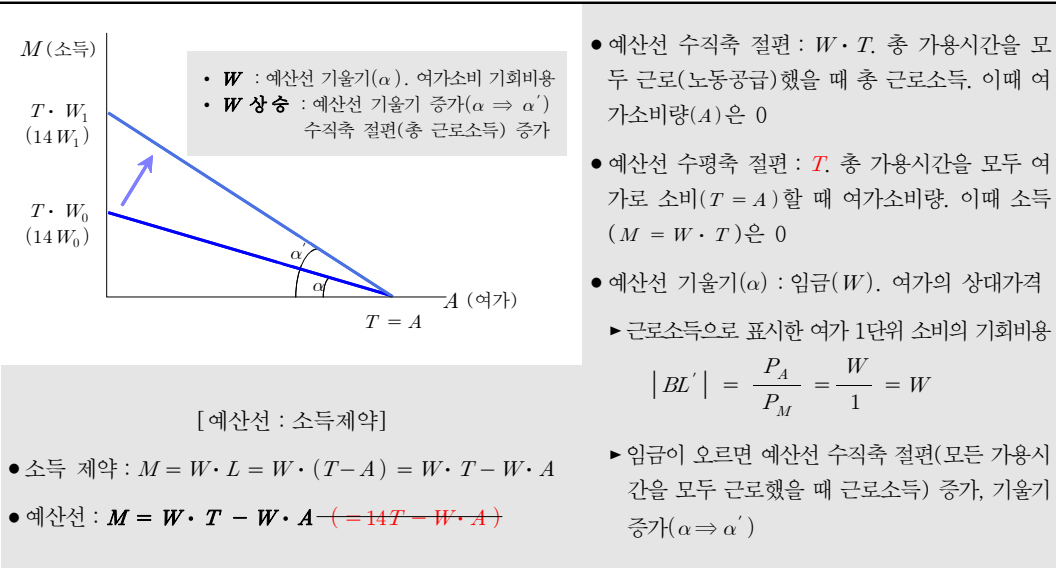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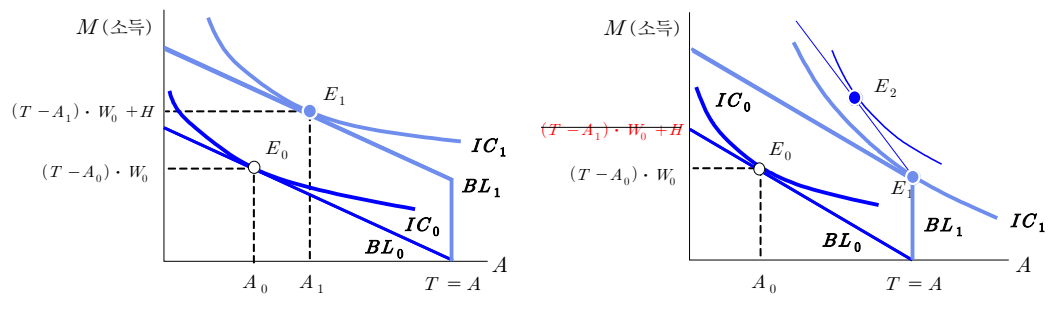
# 공인노무사 노동경제학(개정4판) 정오표(2026.02.27. 기준)

## [P17 내용 수정]

• 예산선 :  $M = W \cdot T - W \cdot A$  ( ~~$= 14T - W \cdot A$~~ )



## [P23 그래프 수정]



[P34 내용 수정]

● 유보임금(Reservation Wage)

▶ 총가용시간( $T$ ) 모두 여가( $A$ )로 소비하여 소득이 0일 때의 한계대체율( $MRS_{AM}$ )이 유보임금

$$MRS_{AM} = \frac{MU_M}{MU_A} = W (= \text{유보임금})$$

▶ 비근로소득( $H$ )이 있을 경우는 없을 경우에 비하여 여가의 선호도(한계대체율( $MRS_{AM}$ ))가 증가하므로 유보임금 증가

[P35 내용 추가]

(3) 노동공급비용과 유보임금    ■ 육아비용과 보조금 및 유보임금

③ 따라서 근로자에게 각종 조세가 부과되면 근로자의 가치분 근로소득이 감소하면 유보임금이 증가한다.

[P50 내용 수정]

(2) 규모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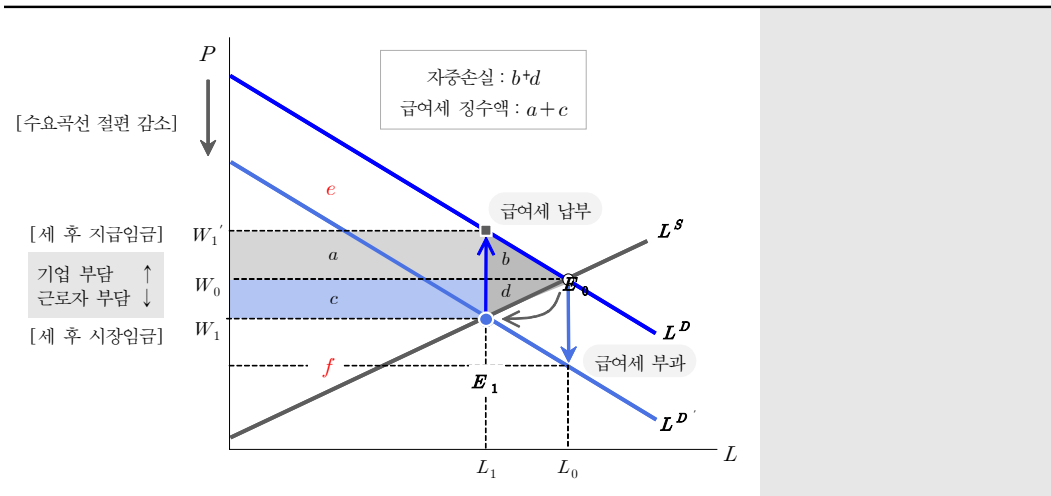
⑥ 위와 달리 만약 노동이 열등요소(열등투입, 생산량 증가 시 투입량 감소)가 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하락하면 한계비용이 증가한다.

(직관적 이해 : 임금 하락 → 예산증가에 따라 생산증가  
→ 노동투입 감소, 자본투입 증가  
→ 한계비용 증가)

⑦ 한계비용이 증가하면 생산이 감소(등량선 좌측이동)하므로 열등요소인 노동투입량은 증가한다.

⑧ 결국, 임금이 내릴 때 정상요소일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투입량이 증가한다.

[P73 그래프 수정 : 그래프내 e, f 위치 조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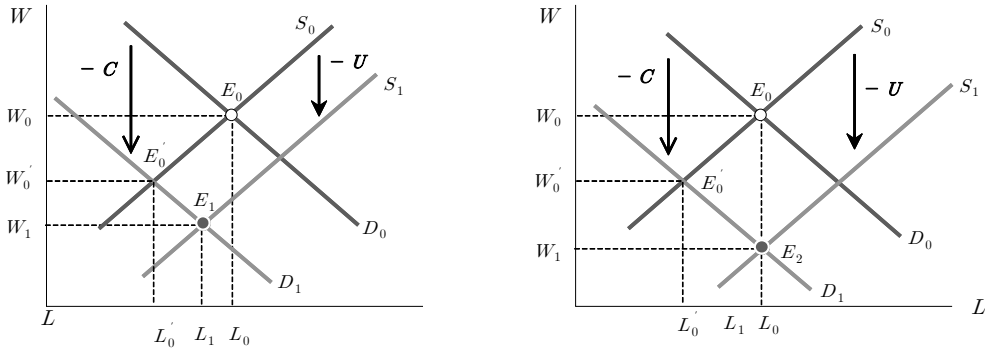


[P76 내용 수정]

2. 고용보조금(정책보조금)

- ㉓ 따라서 수요곡선이 정책보조금만큼 상방으로 이동(수요곡선 절편 증가)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한다.

[P78 내용 수정]



• 부가혜택 비용이 근로자 효용가치와 같을 때

[P83 내용 수정]

• 예산선 :  $M = (1-t)W \cdot T - (1-t)W \cdot A$   $(= 14T = (1-t)W \cdot A)$

[P89 내용 수정 및 추가]

(2) 균형이동

- ㉓ 이 공적부조금 효과만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모든 가용시간을 여가로 소비( $T = A$ )하는 것이 효용극대화 균형점되며, 이는 제1장에서 비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의 균형과 같다(위 그림에서  $E_1$ ).
- ㉔ 그러나 부의 소득세에 따른 한계세율을 고려하면 예산선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하므로 최종 균형점은 앞 페이지 그림에서  $E_1$ 이 된다.

(3) 복지급여와 노동공급

- ㉓ 일반적으로는 공적부조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더 커서 여가소비가 증가하고 노동공급이 감소한다.

[P102 내용 수정 및 추가]

1. 가구 예산선 : 가구 기회집합

- ㉓ 가구는 구입하는 시장재( $Y$ )와 직접 생산하는 가구재( $X$ ) 소비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.

[P121 내용 수정 : 비숙련노동을 모두 숙련노동으로 수정]

- 요소가격 변화 효과 : 자본과 숙련근로자의 경우, 이자율(자본의 가격) 변화
  - ▶ 대체효과 : 이자율( $R$ , 자본의 가격)이 내릴 때 자본량으로 표시한 비숙련노동의 상대가격( $\frac{W}{R}$ ) 상승. 상대적으로 비싸진 **숙련노동** 수요 감소

---

이자율 ↓ ⇒ **숙련노동 상대가격** ( $\frac{W}{R}$ ) ↑ ⇒ **숙련노동수요** ↓

이자율 ↑ ⇒ **숙련노동 상대가격** ( $\frac{W}{R}$ ) ↓ ⇒ **숙련노동수요** ↑

---

- ▶ 규모효과 : 이자율( $R$ , 자본의 가격)이 내릴 때 재화생산 한계비용이 감소하여 생산량 증가. 생산량 증가에 따라 **숙련노동** 수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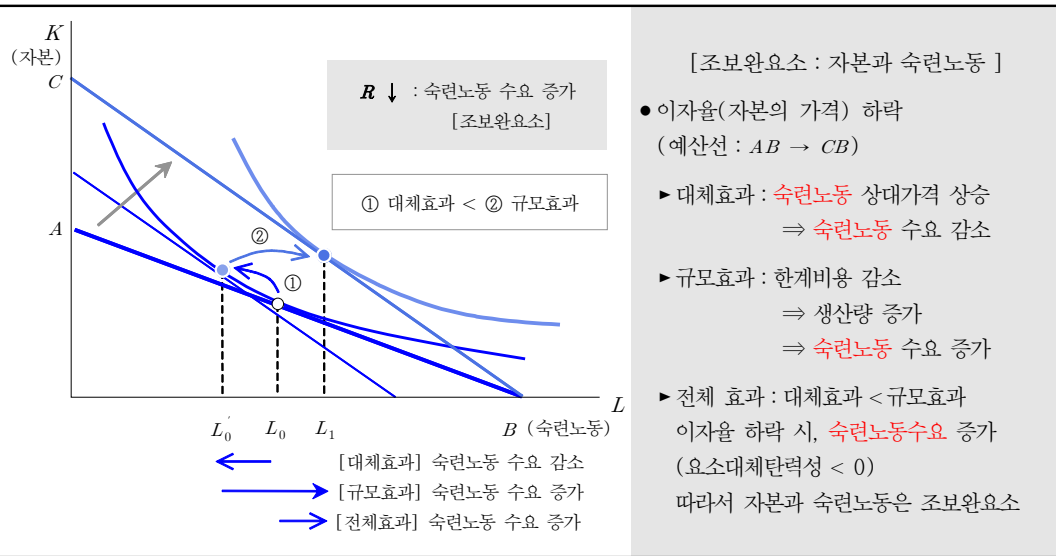
---

이자율 ↓ ⇒ 한계비용 ↓ ⇒ 생산량 ↑ ⇒ **숙련노동수요** ↑

이자율 ↑ ⇒ 한계비용 ↑ ⇒ 생산량 ↓ ⇒ **숙련노동수요** ↓

---

- 자본과 숙련노동 : 조보완요소. 이자율이 내릴 때 **숙련노동수요** 증가  
따라서, 대체효과 < 규모효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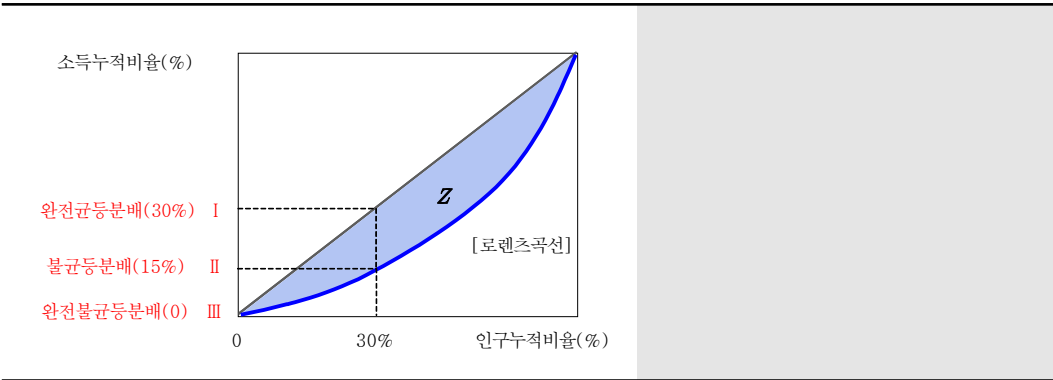
[P152 내용 수정]

2) 선별가설모형과 교육투자수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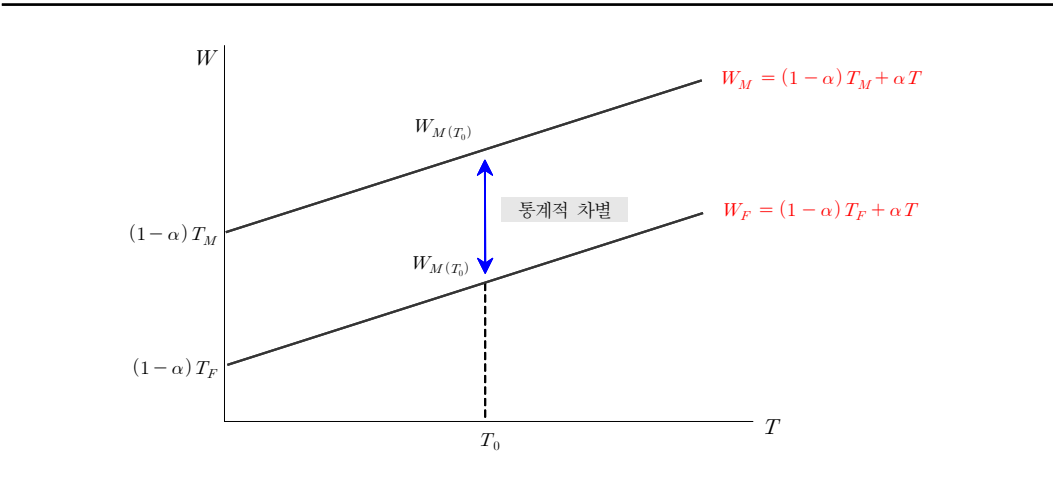
① 교육투자수익률(순편익 증가율)은 교육받을 때의 순편익과 교육받지 않을 때의 순편익의 차이를 교육받지 않을 때의 순편익으로 나눈 것이다.

즉, **교육투자수익률 =  $\frac{\text{교육받을 때 순편익} - \text{교육받지 않을 때 순편익}(OA)}{\text{교육받지 않을 때 순편익}(OA)}$**

[P165 그래프 수정 : y축 항목 위치 수정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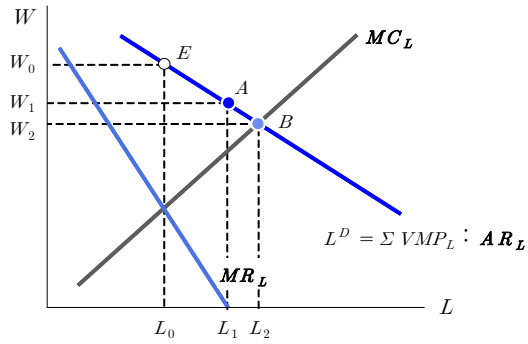
[P191 그래프 수정]



[P192 내용 삭제]

- 임금함수 (단,  $\alpha$  : 상수(절편),  $\beta$  : 임금계수)
  - ▶ 남성(M)의 임금함수 :  $W_M = \alpha_M + \beta_M \cdot S_M$  — ⑦⑧⑨ —

[P200 내용 수정]



[공급독점노동시장]

- 이윤극대화(E) : 극대화 조건( $MR_L = MC_L$ )에 따라 노동공급량  $L_0$ , 임금  $W_0$  결정
- 소득극대화(A) : 극대화 조건( $MR_L = 0$ )에 따라 노동공급량  $L_1$ , 임금  $W_1$  결정
- 공급량극대화(B) : 극대화 조건( $AR = MC_L$ )에 따라 노동공급량  $L_2$ , 임금  $W_2$  결정

[P200 내용 삭제]

구성항목	기준	[예]
직무급	직무	직책수당
연공급	연공	차격수당
직능급	직능	정근수당, 가족수당
성과급	성과	경영성과급, 상여금